

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 본격 시행

- 총 1,415억 원 투입, 인천신항 물류수송망 및 교통체계 구축 강화 기대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‘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공사’가 7월 11일(목)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
인천신항은 컨테이너부두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* 등으로 항만화물차량 교통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, 기존 도로만으로는 증가하는 교통량 처리가 어려워** 도로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다.

* '26년 인천신항 '컨'부두(1-2단계) 3선식 준공예정에 따라 총 9선식 운영계획이며, 항만배후단지(1-1단계 3구역, 1-2단계) 등 지속 개발 예정

** 기존 상부 진입도로가 주거, 첨단기업 및 학교시설 등이 계획된 송도 11공구를 관통함에 따라 대형차량이 상부도로를 통행할 경우 소음·분진·교통사고 증가 등 피해가 우려

그러나, 인천신항이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과정에서 기존 진입도로를 확장하면 대형차량 통행으로 주거지역 및 학교시설 등에 대한 소음, 분진 등의 공해를 일으킬 수 있고, 교통사고도 증가하여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진입도로 확장 대신 도로 하부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.

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는 왕복 4차선, 총 5.25km(지하차도 3km, 고가차도 0.99km 포함) 총사업비 2,962억원을 투입하여 건설할 예정이며, 2025~2026년 설계, 2026~2030년 공사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지하차도 건설은 인천신항 화물의 원활한 운송과 물류 통행시간 단축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, 대형 화물차량의 지하차도 이용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됨에 따라 일정에 맞춰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”이며, “인천신항 개발에 따른 물류수송체계 적기 구축을 위해 관련 예산확보 및 사업관리 등 지하차도 건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항만국 항만개발과	책임자	과 장	황상호 (044-200-5930)
		담당자	사무관	김용수 (044-200-5937)

□ 사업 개요

- (목적) 신항 발생 화물교통과 도심교통을 분리·운영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, 소음·분진 저감을 통한 도시정주환경 개선 및 항만물류수송체계 구축
- (위치) 11공구 인천신항진입도로내(인천신항대교)~남동공단(송도5교 포함)
- (규모) 지하차도 L=4.3km(지하차도구조물 3km, 왕복 4차로), B=20m
고가차도 L=0.99km(교량 0.55km 포함, 왕복 4차로), B=16.4~35.5m
- (기간/사업비) '22년~'29년/ 2,962억원(국비 1,110억원, 지방비 1,852억원)
 - * 지하차도는 국비 1,110억원(50%), 지방비 1,110억원(50%) 부담
 - 고가차도(송도5교)는 지방비 742억원 전액 부담

□ 추진 경위

- '20.12. :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(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)
- '21. 4. :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
- '21. 6.~ '24. 7. : 예비타당성조사 시행

□ 사업 위치도

